

우리들의 공통된 감정적 목표

‘세 개의 컵’ 타로 카드에는 세 명의 여성이 춤을 추면서 컵을 들어 올려 건배하는 이미지가 종종 등장한다. 그것은 우정, 자매애, 결속, 풍요, 협업 및 창의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카드가 역방향으로 놓이면 사회 생활의 불균형, 고독, 가십, 스캔들 그리고 과도한 파티를 의미한다. 우리들의 공통된 감정적 목표(2021)는 서로 다른 컵으로 넘쳐흐르는 세 개의 컵을 시각화한 고빈 아티스트의 작품 제목이다. 협업이란 공동의 목표를 향한 상호 협력을 포함하여 같은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행위 또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희소성에 기초한 사고방식과 자본주의 바이너리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의 협업에는 어떤 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협업을 통해 희소성적인 사고방식에서 풍족한 마음 자세로 전환될 수 있는가?

자본주의 바이너리

자본주의 (권력) 구조는 바이너리로 나뉘어 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과 부자, 부하와 상사,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이러한 구조는 인간이 희소성을 느끼게 되는 구조이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록 나는 상대적으로 더 궁핍해진다는 이론이다. 바이너리란 여타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한 채 오직 두 가지 경우로만 생각한다. 특히 산업계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고방식에 함몰되어 있다. 일자리는 제한되어 있고, 최고경영자 자리는 도달하기 어려우며, 승진이나 임금인상의 기회는 흔하지 않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하나의 파이를 나누듯 여러 사람이 제한된 한 개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각자가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말이다. 모든 것이 풍부하다라는 사고 방식만으로도 사람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의 자원을 각기 개별적인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모든 것은 공존할 수 있다.

자본주의 바이너리는 완벽한 노동자 상(像)을 만들었다.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체력, 시스템더, 남성 그리고 보통 백인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된다. 이에 더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존재들을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을 생산하고, 시스-이성애자를 보호하며 단순히 생산의 수단으로 섹스가 필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범주에 속하지 않는 (퀴어) 정체성과 신체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본주의와 이성애의 규범적 토대를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하지만 이들이 속한 시스템은 이러한 그들의 무보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긴다.

희소성적인 사고는 사람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친구가 되는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성애의 규범적 전통은 사람들이 인생을(결혼 생활의 예로) 함께 보낼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어떨까? 단 한 사람에게만 모든 바램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정이나 연인 간의 로맨스나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면 어떨까? (자본주의의) 기존 바이너리 구조를 탈피한 이와같은 새로운 미래사회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는 데에 예술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티스트 고빈은 본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커피 테이블에 장식으로 사용하는 책을 참고고로 한 매니페스토 및 파일럿 버전 형식의 **TOME**이라는 새로운 작업을 창작했다. 그는 6년 동안 도시 외곽에서 살다가 최근 암스테르담 중심부로 이사했다. 그는 새로운 동네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주로 백인, 네덜란드 사람들의 인테리어를 장식하는 커피 테이블 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많은 집들이 커튼을 열어두고 행인에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그의 이러한 관찰에서 시작하여 그는 커피 테이블북에 대하여 새롭게 접근한다. 이러한 접근은 서구 사회에서 중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취향을 보이고 싶은 욕망 가운데, 자신의 사생활을 보이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수순하다는 칼빈주의적 가치를 질문하는 것이다. 그는 지배주의적인 문화의 관점, 즉, 네덜란드의 경우 식민지적 세계관에 의해 형성된 측면에 관심을 두었다. 그는 커피 테이블북의 형태와 가치를 **TOME**에 차용하여 소수자 목소리와 신체를 위한 플랫폼/오브제/놀이의 장을 만든다. 그는 각양각색의 배경을 가진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만든 **TOME**의 오프라인 쇼룸을 구성할 계획이다.

집단주의

예술의 집단주의는 암시적이지만 고정되지 않은 오래된 실천 방식이며 공동의 목적을 가진 개체 간의 협력적, 상호작용적, 협동적 또는 관계적 교환을 의미한다.

필트 하우스는 안드라(Andra Nadirshah)로 대표되는 6명의 회원 클라이언트로 구성된 컬렉티브이다. 안드라는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집단 구성원을 구현하는 설치, 공연 및 음향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구성 단체로부터 가이드를 받는다. 이 컬렉티브를 통해 각 구성원은 세계화된 경제, 정체성 기호학 및 생물학적 오염을 통해 지구와 신체가 하나가 되는 영역으로 초월하기를 희망한다. 각 개체는 어린 소녀에 대한 인공 지능의 이해(SYLLA), 내분비교란 오염 정치(COLY), 신체 재료 시장 가치 및 타당성(LYLEX), 포스트 링구얼 앰비언트 뮤직(ROCO), 질병을 동반한 출산(ANDRA), 정신병리 치료 및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교차 화학 물질(PHILIP)과 같은 특정 현상에 중점을 둔다. 1

비디오 작품 SYLLA:ISDIY(2021)에서 필트 하우스는 미국과 유럽의 대중 매체에서 인간이자 여성으로 인식되는 의미에 대하여 질문한다. ‘언캐니 밸리’의 개념(하나의 시스템이 인간의 외모와 이상할 정도로 유사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경우)은 트랜스젠더의 전환 과정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는 전환 시 시스템 및 바이너리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서 시스템(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 식별하는 사람)로 보여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컴파일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머신러닝 시스템이 선택한 스톱 영상을 편집한 이 비디오는 인간의 완벽함과 원형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를 암시한다. SYLLA:ISDIY는 질문의 대상이 소녀이자 인공 지능인 경우에 언캐니 밸리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내가 나의 타인이고 내가 나의 어머니인 곳』(2017)은 곽영준과 김예가 진행 중인 공동 작업 프로젝트의 한 파트이다. 수년에 걸쳐 그들은 김예가 시작한 교류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연을 개발했는데 그중에는 “환상의 실현” 행위와 관련한 곽영준의 작품이 있다. 이에 이어 곽영준은 김예에게 “진짜 여자”가 되기 위한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으로 인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내가 나의 타인이고 내가 나의 어머니인 곳』 비디오에서 김예는 아기 곽영준의 엄마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화장하는 방법과 하이힐 착용 방법, 생리대 사용 방법을 가르치고 아기에게 케이크를 먹도록 한다. 여성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바탕으로 표독한 양육방법을 재현한다. 그들의 공동 작업은 트라우마와 허구 사이에 위치하며 젠더 수행성, 이성애규범성 가족 권한 관계, 퀴어 및 트랜스 정체성에 대한 질문 개념을 중심으로 논한다.

LGBT 정체성 범주가 점차 고정화되고 상승하고 있는 상품 자본주의의 자유주의적 질서로 일부분이 됨에 따라 곽영준과 김예의 협업은 문서화를 통해 젠더 성과와 성과의 시간성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반추한다.2

협력 반전

분리, 소외, 구분, 소원, 분열, 분리, 갈등, 불협화음, 마찰, 부조화, 경쟁 및 단절은 협력의 반의어이다. 이 키워드의 반대적 의미가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는 협력의 다양한 의미와 연관성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다. 협력의 반의어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논의한 거꾸로 된 컵 타로 카드는 종종 인류의 어두운 면을 논한다.(사회 생활의 불균형, 고독, 가십, 스캔들 및 과도한 파티).

가십(gossip) 만들기3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가십을 많이 만드는 한 이유는 여성은 실제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종종 여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듣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나중에야 자신의 진짜 생각을 말하면서 가십을 만든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고안된 거짓 자아와 보다 진정한 자아 사이의 이러한 차이는 한 사람의 긍정적인 자존감을 위해 불필요한 요소이다.⁴

사실 가십은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가십에 대해 생각하는 정의와 방식은 수세기 동안 여러 번 바뀌어왔다. 이 단어는 고대 영어에서 파생된 갓십(god-sibb(godparent))에서 파생된 것으로 한 아이의 양육을 돕거나 혹은 필요하다면면 보호자가 되기로 서약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종종 출산한 사람의 가까운 친구로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16세기경에는 이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겨났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긴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가한 대화를하며 비밀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바뀌었다.

여성 간의 우정은 마녀사냥 대상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여성들은 서로를 비난하도록 고문 당했다. 친구들을 서로를 고발했고, 딸은 어머니를 고발했다. 이처럼 '가십'이라는 단어는 우정과 애정의 말에서 폄하와 조롱의 말로 바뀌었다. 이전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이와같이 변경된 의미가 내포되었으며, 16세기 후반의 사적인 비난이나 공적인 의식을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동을 강요한 비공식적인 여성 모임을 의미했다. 그리고 (산파처럼) 여성들 사이의 협력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함을 의미했다. ⁵

아트 고쓰는 아티스트이자 작가인 L. 아티머와 M. 고사머가 2020년 11월에 설립하고 심혈을 기울인 예술 가십 플랫폼이다. 그들은 네덜란드 문화 분야의 제도, 구조 및 현상에 대한 비판적 내러티브와 관찰한 바를 전달하는데 이를 인스타그램, 공연 및 전시 제작을 통해 구체화한다. 예술계의 불평등과 제도화된 폭력에서 탄생한 아트 고쓰는 가십을 정당하고 정치적인 지식 생산의 힘으로 되돌려 놓았다.⁶ 그들의 신작 『마침내 평화』(2022)에서는 혐담하는 여성의 다양한 묘사와 과거 혐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고문 장치를 통합했다.

예술가, (활자) 디자이너, 작가인 샬롯 로드는 초여성과 팝/인터넷 문화에 대한 연구로 알려져있다. 그녀는 『여성적 총동』(2022)이라는 제목의 시집에서 현대 문화에서 여성성을 수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온라인에서 관심이 통용되는 세상에서 여성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질문한다. 텀블러에서 담배를 피우는 소녀, 라나 델 레이, 카일리 립글로스, 코르셋, 공감, 권한 부여 및 신성한 여성성을 결합하여 그녀는 철학적이고 분석적인 성찰로 종종 '낮은 문화'로 간주되는 현상을 녹인다.

에미르하킨은 이번 온라인 전시를 위해 영상 신작을 창작하였다. 비디오는 웹캠으로 촬영한 다양한 온라인 영상으로 구성된다. 아늑한 침실, 어수선한 배경, 개인 물품을 통해 카메라 뒤에 숨겨진 삶을 엿볼 수 있다. 온라인에서 서로를 지켜보는 것은 화면 앞뒤로 있는 사람들이 연결될 때 집단 활동이 된다. 『엿징』(구두 언어)(2023)은 퍼포먼스 아트와 웹캠 퍼포먼스 간의 각기 다른 노동의 거리에 대해 질문한다. 폭력은 시야 밖에 있을 때 어떠한 상황이 되는가?

(충분히 나쁜 어떤 것의) 과도함

1997년 스파이스 걸스의 노래 『과도함』이 발표되었고 "과도함 자체만으로도 나쁘다"라는 가사의 팝 발라드 음악이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이 가사는 무언가를 과도하게 경험하면 불쾌하거나 적절하지 못하게 느끼거나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개념을 나타낸다. 풍요가 '사랑의 풍요'와 같은 긍정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반면, 과잉은 특정 '허용 가능한'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상태를 설명하는 데 사용된다.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과잉의 개념은 특정한 것(희소성)에 제한이 있거나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발생되었다. 천연 자원은 부족해는데 더불어 사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이 시대에 나는 쿼어성이라는 과잉행동 다수성에서 볼 수 있는 더 풍요로운 마음가짐을 선택하고 너그러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싶다.

1. 필트 하우스 지음
2. 『내가 나에게 타인인 곳, 내가 나에게 어머니인 곳』(데이비드 에반스 프란츠 지음(<https://www.youngjoon.com/mommybaby>))
3. 티(tea)는 퀴어/드래그 커뮤니티에서 '진실'의 문자 T를 나타내며 종종 가십, 뉴스 또는 사실을 언급하는 데 사용된다.
4. 『혹스, 벨, 사랑에 대한 모든 것』(뉴비전, 2000. p.59-60)
5. 『페데리치, 실비아, 마녀들, 마녀사냥, 그리고 여자』(Pm 프레스, 2018)
6. 아트 고스 지음